



# 네이든 하저 Nathan Harger

## 흑과 백의 대비 Black and White Contrast

취재 - 이지현 // By Lee Ji Hyun

산업화된 대도시의 혼한 풍경인 고속도로, 공장, 크레인, 자동차, 비행기 등 상업적 목적과 이익창출에만 이용되던 도시기반시설물들을 흑백의 예술로 승화시킨 사진작가 네이든 하저의 전시가 오는 9월 11일부터 열린다.

하저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인 '흑과 백의 강렬한 명암 대비'를 이용한 독특한 화면 구성은 흔히 흑백사진에서 표현되는 음역을 과감히 생략하여 주 피사체 주변의 복잡한 배경들을 눈이 부실 정도로 새하얗게 처리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흑백의 대비는 조형적인 형태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였다. 이러한 그의 사진작품들은 도시의 산업시설물이 가진 본래의 기능적인 역할과 차가운 질감은 사라지고 마치 새하얀 화선지 위에 진한 먹으로 힘차게 그려낸, 동양화의 강렬한 기운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이제껏 느껴 보지 못한 새롭고 신선한 시각적 매력을 관객에게 제공한다.

또한 이번 개인전을 위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하저는 한국의 여러 도시들을 여행하면서 새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도시 뉴욕과 또 다른 한국의 대도시에서 그가 느낄 신선함이 사진 속에 어떻게 표현될 지, 작가의 앞으로의 여정이 기대된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 그의 전시는 오는 10월 10일까지 공근혜갤러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Photographer Nathan Harger's exhibition begins September 11th. He uses industrialized cities as his subjects, taking images of common landscapes such as freeways, factories, cranes, cars, planes, and other objects used for commercial purposes.

Harger's work is characterized by the strong contrast between black and white, and his use of a unique visual design is emphasized by the use of black and white photography. The strong contrast eliminates the complex background, and the negative space appears as white as snow. As a result, the monochromatic contrast draws out a more significant figural form. His works are representative of the city's industrial facilities, but omits the original functional roles. Upon a closer look, the cold, pure-white feel of the images fade, and the powerful dark lines of the images surface. The strength and energy present in his images are similar to that in oriental painting, and it gives his work an innovative and fresh charismatic appeal.

For his solo exhibition, Harger traveled to Korea for the first time. He plans on working on new material during his visit. The big cities in Korea are different than the big city of New York, and I anticipate the fresh feel of the images he may take in our country. I am curious as to how he will portray Korea, and I am excited for his future work. Harger's work attracts our eyes and our hearts, and is on display at Gallery K.O.N.G. until October 10th.

